

김민수의 회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득한 감각과 기억을 되살려서 관람자로 하여금 공감과 사유의 시간을 갖게한다. 그의 회화는 개인적 경험과 내재된 기억들에서 발현하는 시각적 에세이면서 새로운 심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미지의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작가는, 이번 경기도 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개최한 개인전을 통해서 그간의 호흡을 고르고자 과거 작업들을 꺼내어 그때의 심상을 복기하면서 현재의 시간에서 생동하는 이미지들과 나란히 두고자 하였다. 전시제목 《어제, 오늘, 라이브》는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 글에서는 지난 9월 아티스트 토크에서 작가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전시의 주요 출품작들을 살피고 김민수 회화의 현재를 짚어 보겠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김민수의 예전 작업인 〈어제〉(2014), 〈라이브〉(2014)와 신작 〈오늘〉(2025)이라는 작품을 나란히 전시하게 되면서 각 작품에 등장하는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제목으로 이어진 것이다. 십여 년 전 작가는 TV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영상의 빠른 움직임과 대비되게 화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날짜와 텍스트에 시선이 갔다. 작가는 이를 촬영한 후 일련의 ‘TV 페인팅 시리즈’를 진행했는데, 〈라이브〉는 그 첫 번째 작업이었다. 이 그림은 명백히 TV 장면으로부터 출발했지만 텍스트를 지우면 색면추상을 연상시킨다. 〈어제〉는 액정 화면의 실제인 픽셀을 드러내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점묘를 수행한 그림이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그림을 두고 작가는 〈어제〉는 과거로, 〈라이브〉는 미래라는 시간으로 느끼며, 둘을 연결하는 〈오늘〉을 그렸다. 회화적 뉘앙스뿐만 아니라 시간성을 지시하는 작업으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민수 회화의 ‘오늘’을 기념한다.

전시는 프로젝트 갤러리와 라운지 두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갤러리는 닫힌 방 구조로 작가의 서정적이면서도 다소 고독한 내면이 투영된 개인적인 심상이 드러나는 작업 위주로 구성되었고, 개방감이 있는 라운지 공간은 이야기가 있는 작업들로 구성되어 관람객과의 호흡을 도모하였다. 프로젝트 갤러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렴풋이〉(2025)는 너른 지평선과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는 쾌를 선사해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업이 시원하게 그려지기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그는 추상과 구상 사이를 오가면서 장면과 색감에 대해 고심했다. 또 다양한 패브릭과 페인트로 재료를 테스트하여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인 젯소칠이 된 캔버스천을 선택했다. 이 과정을 작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과 감각을 다시 찾고 덮고 그리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결과적으로 8개의 정방형 캔버스가 모아진 화면은 개별 화면 내용을 들여다보게 하면서도 큰 화면에서 펼쳐지는 시원함을 동시에 획득하여 단일 캔버스에 그린 것보다 더 유연한 구성이 되었다. 또 다른 대형 회화인 〈새의 자리〉(2025)는 나무, 구름, 새, 땅의 검은 실루엣과 연보라 빛 그라데이션의 대조가 심플하면서도 과감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보았던 해질 무렵 역광의 풍경, 그리고 약간 높은 시선에서 바라본 나무가 있는 풍경이 쌓이고 쌓여 한점의 그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즉 작가에 의하면, 그의 그림은 특정 장소나 장면으로부터 받은 심상에서 시작되더라도 완성을 향해갈수록 그 장면이 언제 어떤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비슷한 이미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나무와 새는 작가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머무는 대상이다. 한편, 〈서서히 1〉(2025)과 〈서서히 2〉(2025)는 화면 속 대상의 형태나 움직임과 같은 특질이 김민수가 사용한 재료의 성질, 붓터치와 일체화가 된 그림이다. 두 그림 모두 습하지만 햇살은 맑은, 또는 비가 왔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강렬한 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을 담았다. 작가는 〈서서히 1〉에서 조색한 물감을 즉흥적으로 뿌려가며 새와 비를 그렸고, 배경과 그 위로 흘러내리는 물감이 대비가 되면서도 연결이 되게 하여 오묘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색조합을 만들었다. 〈서서히 2〉는 노란 톤으로 전체적인 기조를 잡고 얇은 갱지를 단풍잎 모양으로 오려 덧붙였다. 그림의 왼쪽 부분은 나무 같기도 하고 빛 같기도 한데, 김민수는 펄이 있는 물감을 칠한 캔버스천을 나무 패널보다 더 튀어나오게 붙여 표현하였다.

김민수는 개별 작품에서도 지지체나 재료, 물감을 유연하게 다루지만 전시 공간상에서도 빈번하게 캔버스를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한다. 라운지 중앙 벽에 설치된 〈둥지\_바람을 견디며〉(2024)는 작가가 수원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을 때 레지던시 주변의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새둥지들을 캔버스 천과 나무를 이용하여 콜라주 방식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1년 동안 레지던시 작업실에서 작가와 함께 한 이 작업은 경기도미술관 라운지로 옮겨와 주변의 환경과 조응하면서 또 다른 광경을 만들었다. 한편, 〈탐험가들(L)〉(2025)과 〈탐험가들(R)〉(2025)은 라운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설치되어 시선을 끄는 작업이다. 작가는 분리된 두 벽을 하나로 생각하고 벽화 같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는 야외 예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 당시 자유롭게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던 아이들 모습이 기억에 남았고, 그 경험을 변형하여 아이들과 만났던 순간에 받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두 그림은 각각 떨어진 벽에 걸려 있지만 상황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그려 넣어 하나이자 둘인 그림이 되었다. 〈탐험가들(L)〉의 왼쪽 끝의 나비는 바로 옆의 작은 그림 〈새 한마리〉(2025)로 시선을 유도한다. 작가는 평소 새를 빈번하게 마주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리로 인해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우연히 새 날개짓의 푸드덕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에 놀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그 존재가 더 강렬하게 각인되는 경험을 했다. 이후 곧잘 새에 시선이 가게 되었고 새는 김민수 회화에서 작가의 심상을 대변하는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운지에는 〈악기가 되어버린 화살 2〉(2025), 〈매일 깨고 나오기 1〉(2025), 〈옆질러진 물이라도〉(2025)처럼 작가가 세상과 형성하는 관계와 해석, 즉 일종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여러 점 전시되었다. 김민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진다. 근래 작가는 작업의 공허함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붙여넣어야 했다. 〈매일 깨고 나오기 1〉는 매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작가의 심정을 담았다. 〈악기가 되어버린 화살 2〉는 아이들과 함께 활과 화살을 만들다가 깔깔 웃었던 한때를 떠올린 것이다. 〈옆질러진 물이라도〉는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지난 실수를 후회한다면 그 마음을 격려하고픈 생각을 담았다.

그간 김민수의 회화는 ‘일상을 포착한다’는 말로 쉽게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일상이라는 용어는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심상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김민수 회화를 설명하기에 다소 불충분하다. 김민수는 반복, 관계, 삶의 의미에 관한 사유를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반복적으로 겪는 일들 속에서 만났던 사람, 마주친 동물, 또는 매일 만나는 사람과 나눴던 대화, 그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회화에 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소함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관계에 대한 무

료함이 아니라 다정한 관심이기도 하다. 즉 김민수의 회화는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오는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삶의 의미를 관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휘발적이고 자극적인 디지털 이미지가 만연한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이미지에 종속되지 않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이미지와 심상은 디지털 이미지에 종속되어 있는 감각의 표출이 아니다.

김민수의 회화가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그는 회화의 지지체나 재료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유연하다 그는 드로잉을 하면서 원래 쓰임과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료를 사용하고 자 한다. 평소 그는 물감과 같은 회화의 기본 재료뿐만 아니라, 건축 모형 재료, 스펅글, 종이 등 통상의 회화 재료에서 벗어난 재료를 모아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페인트를 엮지른 경험을 다룬 〈엮질러진 물이라도〉에 걸쭉하게 흘러내리는 페인트를 사용했고, 페인트의 유동적인 물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캔버스로 화면을 분할했다. 작가의 말처럼 실수를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다.

한편, 김민수의 색채 판단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다. 물감의 조색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색채 대비, 레이어링, 텍스처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이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 중에서 색채에 대한 판단이 가장 빠르고 자신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도 색채다. 그는 아크릴 물감을 즐겨 사용하는데 빨리 마르고 물로 점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크릴 물감은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진흙 위에 올려진 플라스틱 통'처럼 수채나 유화보다 훨씬 더 인공적인 느낌이다. 오랜 시간 아크릴 물감을 다뤄온 김민수의 깨달음은 대상에 정확히 일치하는 색이 아니라 전달하려는 느낌을 닮은 색을 선택해야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민수 회화에 담기는 감각은 본능적이되 반복적으로 쌓아올려진 감각, 시간을 두고 체득한 감각에 가깝다. 그는 그림에 자신의 솔직한 감각을 담고자 하고, 이것은 자주 경험해서 익숙해진 장면이나 메시지를 계속 조금씩 변형해가며 찾아내는 것이다. 새, 나무, 아이들 가족, 친구들은 현재까지 김민수에게 중요한 회화적 대상이다. 이 관계들과 쌓아올린 시간, 함께 한 기억들에 그의 감각이 작동한다. 그리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 여러 감각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다. 작가는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어릴 때부터 흙냄새와 비냄새를 좋아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문혀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의 회화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이 체화된 감각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감각이 체화된 회화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을 가진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맛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주인공처럼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감각을 통해 되살아나는 경험이다. 체화된 감각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현상이다. 실제 작가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감각을 거듭 새롭게 하고자 한다. 오늘을 더 새롭게 감각하고 경험하기 위해 과거를 상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속도가 곧 힘이고 경쟁력인 오늘날, 회화는 이 속도를 역행하는 아주 느린 매체다. 그러나 김민수는 회화가 전통적인 매체임과 동시에 언제 어떻게든 어떤 것도 다룰 수 있는 매체로서,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또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김민수의 회화는 회화의 속도를 유지하면 된다.